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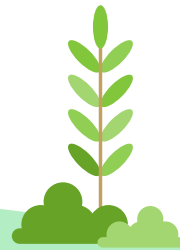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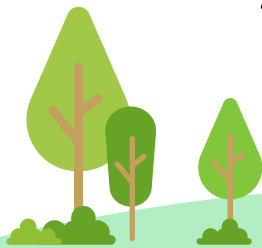


제272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문일답)입니다.



## 박 종 선 의원



“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준비 및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관련”

“ 유성온천지구 관광 활성화 및 국가산단 지정 관련”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 박 종 선 의원

### ● 박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5만 대전시민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유성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유성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참석하고 계신 것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전시 정책과 행정상의 난맥을 짚어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지정까지 남은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총력 지원과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는 지난 11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해서 그에 따라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전의 자랑, 우수한 관광자원 중 하나인 유성온천지구를 정비하고 활성화해서 유성온천 관광명승지를 전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이라는 이장우 시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가산단 지정,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전의 미래,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하여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유성구민, 특히 진잠동 교촌지역 주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지, 오늘 시정질문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영상을 통해 시장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개시)

바로 이곳이 대전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교촌동 일원입니다.

(영상자료 종료)

서일환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시장님께 본 사업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고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큼니다. 지난번 국가산업단지로 발표할 즈음에 시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6조 2천억, 고용창출효과가 3만 5천 명,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예, 예측한 추정치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 박종선 의원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나노·반도체, 우주항공산업을 모토로 해서 소부장산업, 테스트베드 요충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생각 맞지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렇습니다.

## ○ 박종선 의원

현재 관내에 약 266개 기업이 이 지역에 입주 희망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266개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에는 484개가 입주 의향 의사를 밝혔고요.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산업 용지로 160만 평 중에 구축 가능한, 순수한 산업 용지로 가능한 게 74만 평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순수한 산업 용지 74만 평.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것을 보면 반도체특화단지에 본래 들어오겠다고 했던 기업이 266개이고 국가산업단지는 484개인데 이 산업 용지로 봤을 때 현재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현재 조건이 229%쯤 되기 때문에 사실상 160만 평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박종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예.

○ 박종선 의원

향후 추가계획에 약간 변경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시장 선거 때 약속드린 산업 용지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현재 교촌동 160만 평에다 안산 그리고 추가로 K-켄달스퀘어, 유성구 가정로 부분 포함해서 소규모 산단 15개 정도를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까지는 500만 평 이상의 산업 용지를 구축해서 정말 대기업을 포함한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또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차질 없이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아주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건 의욕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선 의원

그렇지요.

저는 이장우 시장님을 오랜 기간 젊은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이지만 약속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지키는 분이시고, 아마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가운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력, 추진력 그리고 끈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시기에 정치에 입문했으면서도 늘 제가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이것 되려면 특화단지에 지정되는 것이 예타 면제라든지 등등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줍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만들어서 6개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특제도 주고요, 그런데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도는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 정치력 탁월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국회에서 같이 일도 해봤습니다만 고교 저의 1년 선배라 자별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런데 어제 이장우 시장님 서울 가서서 개소식도 해서 좋은 일도 많이 만드셨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착착착 추진되려면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었는데 탈락했단 말이에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2023년까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는 지난 8월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해서 3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에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하고 대전시 시공사를 이미 선정했고요, 사업시행자의 기본협약조건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서 2025년 말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산업 승인 이후에 토지보상과 조성공사 또 기업 입주 협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적기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만, 엇그제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 친전도 드렸고 대통령 비서실, 각 부 장관들과도 충분히 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는 세제 혜택이나 예타 면제 일부 유리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거기에 더 얹었을 경우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시도 강력히 밀었습니다만, 현재 이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앵커기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미 대기업들이 입주해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특화산업단지가,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료들 인식이 ‘아직도 대기업이 있는 중심으로 사업을 짜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SK실리콘이라는 웨이퍼 공장이 있고, 그리고 LG이노텍이라는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반도체기업이 앵커기업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산단이 2030년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또 교훈이 뭐냐 하면 역시 도시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 때 준비가 제대로 되면, 다음 시장이나 10년 후에도 그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대비를 더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국가산단 문제는 우리가 이미 지정받아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고 스스로 우리 도시를 일구는 기본취지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GB 해제되어야 되고 말이지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 문제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와 농림부와 절대농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 ○ 박종선 의원

문제없습니까?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예,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낼 때 이미 협의절차를 완료한 지방 정부한테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와는 특히 국가산단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 대한민국 최고 시설의 스마트팜을 일부 넣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따라서 협의가 완전히 완료됐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박종선 의원

그린벨트 해제 걱정 없으면 향후 토지 보상하고 조성공사 진입하는 데도 큰 문제 없겠네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항상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의도 많고, 왜냐하면 보상가가 적다, 많다고는 안 하시지만 늘 적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면 대전시장이나 어떤 누구도 그에 대해 개입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저는 특화단지에서 탈락돼서 말이지요,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대기업 있는 데만 두 군데 했잖아요.

정부 차원의 발상도, 정부 추진계획도 몰상식한 계획이다, 그러면 애초에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6개월간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압니다.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또 시민들 실망도 커져있는데.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까지 없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대전시와 카이스트 많은 교수님들과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여럿 통화도 하고 하면서 ‘앵커기업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중앙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대기업 중심의 사고가 너무 깊고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신규 지역 투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충분한 기반과 도약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부분은 카이스트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기반을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박종선 의원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 사업 마무리 짓는 데까지는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현재로는 문제는 없고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중간 어려움과 고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저는 어제 유성을 아침 일찍 지나가다 전임 시장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깨가 축 늘어지고 쓸쓸한 것 같아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크나큰 정치력, 신이 내려준 정치력과 지도력으로 성균 시장이 돼서,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재선, 삼선 되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큰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시민들이 만났을 때라도 ‘정말 이장우 시장 덕분에 우리 대전이 살게 됐다, 초일류 경제도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제가 사소한

질문은 후에, 이장우 시장께 질문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나와 있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시라고요.

동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예정지입니다, 용계동 일원.

(영상자료 개시)

현재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종료)

시민체육건강국장!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월에 중앙투자심사 발표 남았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잘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이제까지 사전협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문제없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023년도 금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 박종선 의원

단지 조성이 2025년 1월부터, 체육시설 건립이, 삼을 그때부터 뜨는데 행정절차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 지역 용계동 주민들께서 방청석에 와계십니다.

이게 차질 없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현재 중앙투자심사 신청단계고요, 12월 그린벨트 해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2025년도에 공사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만약 8월에, 그럴 리 없겠지만 중투심사에서 어긋났다 그럴 때 대비하는 계획이 있어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중투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사전협의단계를 저희가 농림부와 국토부 다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 박종선 의원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 박종선 의원

다행입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2025년 1월에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삼을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 말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딱 2년, 공기가 2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예정지 조감도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입니다, 멋있지요?

시장님, 저것 한번 보세요, 사진이요.

국장님 말이지요, 저 정도 경기장을 만들어야 우리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청사진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저게 5년 걸렸어요.

다음 사진, 이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저 정도 짓는 데 3년 걸렸습니다.

2년 안에 경기장 준공 마무리 가능합니까?

큰 걱정이에요, 제가.

주민 여러분도 큰 걱정하고 있고, 대전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준공할 것인지.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대 공기 계산해봤을 때 큰 이슈가 없다면 예정된 2026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좋아요,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잘 지을 거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물론이지요.

○ 박종선 의원

2년 동안 환경정비사업 같은, 조금 이따 도시주택국장께 질문할 건데 거기 나무 같은 것 심고 공원도 조성해야 돼요.

저 건물만 덩그러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관만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본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도시개발사업이 투톱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공원까지, 환경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출발했던 말이에요.  
갈등은 없습니까, 지금?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중앙부처와 대한체육회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전시가 선임위원장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잘  
협의돼서 창립총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박종선 의원

대전에서 개막식 하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폐막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세종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세종은 아직 경기장 안 짓고 있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아마 저희보다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지연되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 박종선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학생 올림픽인데 개막식을 대전에서 했으면 대전에서 폐막식도 하는 것이 맞다, 4개 지역에서 공동개최한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인정하기보다는 대전에서 개막식을 했으면 대전에서 폐막식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폐막식도 대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대회를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세종시 종합경기장 건립 자체가 우리보다 행정절차가 늦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항에 따라서 대전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가능성도 있지요?

그리고 경기종목이 몇 개입니까?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경기종목은 총 18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총 18개 종목?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정식종목 15개, 선택종목 3개 해서.

○ 박종선 의원

15개 종목인데 대전에서 몇 개 개최돼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대전에서는 3개, 축구, 수구, 펜싱 세 가지 개최됩니다.

○ 박종선 의원

충남을 보니까, 충남 몇 개예요, 충남이 6개인가 그렇던데?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그런데 저희 실적으로 따지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 대회본부하고.

○ 박종선 의원

충남이 7개예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3개 대회에 프레스센터와 대회본부를 대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가 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래요?

경기종목을 조절하고 다시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까?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 박종선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9개고요, 충남이 5개예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일단 이것은 4개 자치단체가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예요.

○ 박종선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합의됐다고 하니까.

숙소 말이지요, 숙소. 숙소 지금 세종에 있는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선수단 숙소 사용할 생각으로 있지요?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런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토지이용계획 보니까 공동주택이 4,700세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시공사 임대주택이 2천여 세대가 들어가요.

이 사업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맞추면 충분히 그때쯤 가서 아파트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조속히 건립하면 대전에서 개막식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수들 먹고 자게 하고 임원들 먹고 자게 하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단 숙소 조직위원회에서 재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수촌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체육시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와 개발계획이 있는데 아마 대회 이전까지 아파트 준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에 공실이 있는 아파트가 되든 대학기숙사 같은 것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착착착 진행되어 보상되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빨리 가다듬고 추진하셔야 ‘이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를 수 있다, 대전의 도시브랜드다, 대전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무국장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꼼꼼히 챙겨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잠깐 나와주세요.

도시주택국장께 두 개 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개시)

(영상자료 종료)

자, 도시주택국장 말이지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시지요?

###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 조성도 대전의 얼굴인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런데 우리 대전을 찾는 세계 관광객들에게, 선수들에게 저렇게 황폐한 환경을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집중해서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이 발생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종선 의원

저게요, 죽 보세요, 저것.

아주 불쾌한 말도, 우리 대전의 수장을 욕되게 하는 저런 현수막도 있고 말이지요, 사업 시행주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저것 황폐화된 별집들이에요, 저것. 보상을 앞두고 지어댄 것들.

저런 것을 그대로, 바로 옆입니다, 저렇게 방치해두고 지금 사업 개발계획은 민간들한테 모두 가 있지 않습니까?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 박종선 의원

민간업체들끼리 토지주, 사업시행자 측 갈등이 엄청나게 많지요?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일부 그런 사업지구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진정되고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수 위원님들 바늘구멍 같은 것까지 차근차근 잘근잘근 물어대고 그러시는데 원만하게 서로 타협점을 찾도록 해주시고 큰 줄기 속에서 저 사업이 언젠가는 가야 돼요.

지금 15년간 저렇게 황폐화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제 지역이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통령 여러 번 만나시고 대전시민 사랑하는 뜻에서 엄청난 선물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우리 교촌동 지역, 제 지역구부터 출발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엄청나게 고마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된 지역도, 2단계 개발지역도 또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민원도 저한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함께 저렇게 황폐된 지역을 우리 시에서 사업주체들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빨리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도안 2단계는 제가 담당자였을 때 3년 반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제가 생각했던 구상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일부 사업지구 내에서 주민 간·사업시행자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이해 설득과 사업시행자와 중재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박종선 의원

환경정비 차원에서 국장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26년 말까지는 ‘저 주변이 더불어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뚜렷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현수막 자체가 2-2지구에 관한 내용이고요, 현재 2-2지구는 그동안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됐습니다.

○ 박종선 의원

그러면 빨리 떼게 하세요, 저거.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올 6월에 또한 실시계획 승인도 된 상태라 저런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미관을 저해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환경정비 잘해 주실 거지요?

○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박필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또 엄청난 대전의 숙제고 대형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님께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짚막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자원 또 지역 경제자원으로서 유성온천의 가치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시장님께서 유성온천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온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단지 우리 대전광역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성온천이 과거 오랫동안 유성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왔었는데 지난 20년 가까이 사실상 쇠락을 해왔고 최근 많은 호텔들이 폐업하고 거기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해왔는데 이 문제는 15년 전쯤부터 제대로 유성온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지금쯤 꽃을 피웠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 출발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군인휴양소 문제, 군인휴양소를 유성온천에 걸맞게 재개발하는 문제, 국방부와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하고 지금 유성호텔은 22층에 5성급 호텔을 짓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리베라 같은 경우도 철거부터 저렇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시장할 때 일은 아닙니다만 도시구조를 그렇게 계획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성이 이렇게 황폐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지역 얘기를 더 드리면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15년 가까이 저러고 있지요.

그리고 교촌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린벨트 저렇게 묶어 놓고 지금 없었고, 또 장대교차로 문제도 입체화로 안 하고 평면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유성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왕이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유성지역에 대한 거기 주차 문제, 지하 파는 문제, 더 나아가서 호국보훈 메모리얼파크 쪽으로 유성온천 파이프를 당겨서 거기 호텔하고 휴양시설에 결합하는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종선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 동영상, 주민들의 생각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개시)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유성이 지금 이렇게 주민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대동 지역 시장을 비롯해서 그 일대가 전부 조합이 결성돼서, 아파트 공동주택 계획인 거 알고 계시지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 ○ 박종선 의원

거기 일각이라도 말이에요, 일각이라도 어떤 사업계획을 다변화시켜서 민자유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다듬어서 거기를 좀, 유성온천이 어차피 없어지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온천문화축제 정도를 치를 정도로 유성이 명색이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발할 계획, 또 관광특구를 복원할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사실상 호텔사업이 생각보다 수익성이 많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성호텔 같은 경우도 아마 세계적인 체인 회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22층 호텔을 짓고.

왜 그러냐면 단가 문제에 있어서 객실 영업으로는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그동안 대부분 호텔들이 컨벤션 기능은 약하고 숙박 기능이 강화됐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동구에 선사인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컨벤션 기능이 50%가 넘고 객실 기능이 좀 적은 편인데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유성은 결국 호텔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컨벤션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되고, 또 지역의

관광상품화나 지역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대전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호텔들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리베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부터 헐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애당초 그보다 훨씬 뛰어난 호텔 기능과 컨벤션 기능, 나아가서 시민들, 많은 관광객들이 힐링하고 휴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재설계하는 요청을 했었다고 하면 저렇게 헐리고서 그냥 방치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앞으로 유성지역 전체 온천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거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컨벤션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터미널 쪽에도 시설 지원할 수 있는 지원용지 5,000평은 적어도 컨벤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회의든 전국의 많은 회의든 대전에서 많이 하려면, 지금 DCC나 컨벤션센터가 사실상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이걸 넘기 위해서 하여튼 유성지역에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지난 샷포로에 갔을 때 샷포로의 호텔에 숙박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 신발 벗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2박 3일이든 충분히, 온천 하고 음식 먹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짜놨는데 ‘우리나라 호텔도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유성 전체, 호국보훈 메모리얼파크의 숙박시설 문제나 유성호텔 재건축 문제나 리베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유성의 온천 기능이 강화돼서, 아무리 우리가 온천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업하는 분들이 수익성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누구도 하려고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밀하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 박종선 의원

질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내 장대지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유성호텔 주변지역이 새로운, 과거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온천관광 인프라라도 건설이 돼야 된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성온천지구,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국비 90억, 시비 45억, 구비 125억 해서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줄속입니다.

온천문화체험관, 온유성휴센터 조성, 관광 편의공간, 온천여행 라운지, 이런 데에다가 250억 정도 돈을 쏟아붓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에서 하는 줄속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걸친 지휘감독 총괄책임이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이 부분을 리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해서 유성온천 관광이, 그 호텔 주변이 그나마도 누가 보더라도 100년 된 유성온천이 있었던, 유성호텔이 있었던 곳이거나, 정말 유성온천 관광이 맞구나, 이럴 정도로 뭔가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대전시가 갖고 있는 상당한 전략사업이 유성지역에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건 유성지역에 그동안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상당히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까지 보고, 그냥 단순히 현재 구조에 있어서 도시구조를 설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까지 보고 유성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기능이 가능하고 또 일자리가 가능하고 대전경제를 키우는 핵심지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도시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구, 중구, 대덕이나 전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발전하고 있는, 유성지역에 남아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전의 미래 먹거리, 또 대전을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플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박종선 의원

이장우 시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감사합니다.

○ 박종선 의원

금일 질문시간이 약간 초과됐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한 내용대로 잘 추진돼서 대전이 초일류 경제도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